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01. Vol. 11. No. 3, pp. 221~244

북한의 영재교육 제도 고찰*

강 경 석 (인하대학교)
kskang@inha.ac.kr

요 약

북한은 최근 '강성대국'론이라는 통치이념 아래 영재교육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정보통신, 컴퓨터 교육을 강조하면서 영재교육을 통해 현대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부터 음악학교·외국어학교·조형예술학교·무용학교·체육학교 등을 설립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재교육을 추진하였으며, 1984년부터는 제1고등중학교라는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군사분야의 영재학교로 만경대혁명학원을 설립하였다. 대학에서의 영재교육도 강화하고 있는데 제1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에는 특별 과정을 개설하여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체능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소질 있는 영재아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꾸준한 연계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주요어 : 영재교육, 영재교육제도, 영재교육체제, 북한교육, 교육이념, 사회주의교육, 수재교육, 속성교육,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 이 논문은 2000년도 인하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인하-21079)

I. 서 론

영재교육은 영재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고급 두뇌 인력을 육성해 주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체제를 구축하여 고급 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영재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재성 계발 과정을 구안하여 영재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각 분야의 우수한 영재를 육성할 수 있는 영재교육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진흥법(2000. 1. 28. 법률 제6215호)을 제정하여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법률 제6400호, 일부개정 2001. 1. 29.)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영재학교와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지정, 설립,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10월 '영재교육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였으며, 영재교육진흥법의 시행(2002. 3. 1.)에 따라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영재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고급인적자원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추진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17일에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 방과 후 특별활동 형식의 영재학급이 설치되며, 기존의 교육청과 대학 등 부설 영재교육센터 가운데 시설과 교원 여건이 충족되는 영재교육센터가 영재교육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영재교육은 2003학년도부터 과학기술부 지원으로 신설되는 과학영재학교 등 영재학교를 포함, 영재학급·영재교육원 등 3개 체제를 갖춰 추진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02년에 지정하여 2003년에 개교할 영재학교는 다단계 선발

(창의력 테스트, 심층면접 등)방식으로 학생을 뽑는 고교과정(중학교 재학생에게도 개방)이다. 또 교원 한 명당 학생 수가 10명 이내에서 무학년제로 운영된다.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영재학급은 과학, 언어, 예·체능 등 특별분야의 심화학습 과정이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이다. 가급적 방과 후 특별활동 형태로 운영하되 여러 학교가 연합해 운영하는 지역 공동 영재학급도 생겨난다. 또 시·도 교육청, 대학(15개) 등에서 현재 시행 중인 영재교육센터를 2002년 3월부터 연차적으로 영재교육원으로 전환, 방과 후 특별활동 형태의 영재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학생들의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수재(秀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영재교육에 해당되는 것이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조기 영재교육을 자본주의의 반동교육으로 비난하던 북한이 1980년대 초부터 영재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 총비서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1982년 5월 '수재 육성 교육방침'을 하달하고 1984년 7월에는 영재교육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중앙일보, 2001. 4. 24.). 이 지시가 내려진 두 달 후에 첫 영재육성 학교인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인 1985년에는 청진, 함흥 등 각 도(직할시) 소재지에도 영재학교가 1개교씩 신설되었다. 그후 1980년대 말에는 평양시 각 구역에, 1999년 3월부터는 각 시(구역)·군까지 확대되었다. 제1고등중학교는 자연과학, 수학분야에 소질과 재능을 가진 우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나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북한은 또 몇 년 전부터 일반 고등중학교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된 수재반인 '7·15소조'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일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1990년대 초 각 고등중학교에 수학·외국어·물리·화학 등 자연과목을 중심으로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로 이 소조가 조직되었다. 김 총비서의 지시 날짜를 기려 이름이 붙여진 이 소조에 가입되면 각종 동원과 과외활동에서 일체 면제돼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 소조원은 학교 전체에서 불과 십여 명밖에 선발되지 않으며, 분기마다 시험을 쳐서 성적이 저조한 학생은 다시 내보내는 등 철저하게 실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연합뉴스, 2001. 4. 18.).

북한은 또한 정보화 물결이 몰아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몇 년 전부터 고등중학교와 대학에서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컴퓨터 영재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본격적인 컴퓨터 인재양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및 이들 시설의 부속학교인 금성 제1고등중학교와 금성 제2고등중학교에 신설된 '컴퓨터 수재 양성반'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 2001. 3. 11.).

이처럼 북한의 교육체계는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맞춰 종래의 '혁명의식화' 등 정치사상교육 중심에서 컴퓨터 등 첨단 기술 교육 쪽으로 그 강조점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 컴퓨터 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어 나갈 젊은 인재들이 양산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변모해 가는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교육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첨단 정보산업이 주축이 되는 21세기 북한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의 영재교육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영재교육 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교육 전반과 영재교육에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신문기사, 그리고 인터넷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북한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도 풍부해지긴 하였지만 영재교육 분야에서는 여전히 북한 관련 연구 및 언론 기사 등 2차적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 연구도 주로 2차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II. 북한교육에 대한 이해

1. 북한의 교육 이념과 목표

북한의 교육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 이념적 기초로 삼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이념으로서 이후 북한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지도이념으로 자리잡았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서 1970년 이후 당의 지도 이념으로 정착된 것이다. 이러한 이념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북한의 교육 이념과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72. 12. 27. 개정) 제1조와 제4조 및 조선로동당 규약(1980. 10. 13. 제6차 당대회 개정)에 의하면 북한은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근간으로 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념에 근거하여 제35조에서는 북한의 모든 사람이 사회주의 원리를 구현하여 공산주의적 이상인을 육성하는 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1998년 9월 5일에 단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8차 개정에서는 제4조에 언급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주체사상만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수정하여 명시하고 있다(이정규, 2001 :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제3장 ‘문화’와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서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3조에는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과 사명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라고 하여 북한교육의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제43조는 교육사업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중시하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및 생산교육을 연계시키도록 하고 있다. 제45조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제46조는 교육체계, 제47조는 전면적 무료교육, 제48조는 사회교육의 강화, 제49조는 학령전 교육, 제73조는 공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장희 편저, 1999 : 355; 한국교육개발원, 2000 : 174).

이와 같은 북한 헌법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국가가 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를 위한 교육을 이행해야 함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 4. 29. 제정) 제1장 제1조, 제5조 및 제6조에서도 재명시되고 있다. 즉, 유일한 지도 사상은 주체사상임을 재강조하면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체형의 새로운 혁명적 인간의 육성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궁극적인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2장 제12조에서는 국가기관과 사회활동 단체들이 교육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정규, 2001 : 17).

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북한 교육의 교육적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 9. 5. 제정 공포)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북

한 사회주의 교육학의 목적과 기본원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교육내용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테제는 교육사업을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내용을 사회주의 교육목적에 귀결시키고 있다(김형찬, 1990 : 392).

이 테제에서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육성의 선결요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교육을 우선시하고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대평화연구소 편, 1990 : 376-80).

2. 북한의 교육제도

가. 학제

북한은 1996년도부터 신학기를 4월 1일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원래 4월 1일이었던 새학년을 1969년도에 "경제과업 완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이유로 9월 1일로 변경한 바 있다. 북한이 신학기를 또다시 봄학기로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학생들의 사상적 이완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북한 정규교육의 기본학제는 4-6-4(6)제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중등반 3년, 고등반 3년), 대학 4~6년, 연구원(준박사·박사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1년간 의무교육의 기간은 유치원 1년(높은 반)을 포함, 인민학교 4년과 고등중학 6년 사이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4-6-4제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출신성분에 의거한 특수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북한의 학제를 나타낸 것이다.

연령	28	박사원 (2년)		고 등 교 육
	27			
	26			
	25			
	24	연구원 (3~4년)		
	23			
	22			
	21	대학 종합대학 (4~6년) 단과대학		
	20	사범대학		
	19	공장대학		
	18	교원대학 (3년)	고등전문학교 (2~3년)	
17			중 등 교 육	
16				
15	고등중학교 (6년)			
14				
13				
12				
11				
10				
9			초 등 교 육	
8				
7	인민학교 (4년)			
6			취 학 전 교 육	
5	유치원 (2년)			
만4세	탁아소			

자료 : 국토통일원(1988), 북한의 교육실태와 특징, 서울 : 국토통일원, p. 34.

[그림 1] 북한의 학제

나. 무상교육제

북한은 사회전반의 부존자원과 생산수단을 국가의 소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재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즉, 교육을 국가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무상교육은 보통교육과정인 유치원 높은반 1년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 6년의 11년간 '의무교육'으로

하며, 고등교육과정인 대학은 장학제 형식으로 실시한다. 즉,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고등교육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일정한 액수의 장학금을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 북한의 무상교육은 의무교육기간의 교재 등 교육자료의 무상공급도 포함된다. 그러나 교재는 95년부터 경제난의 심화로 사실상 공급되지 못하며 각 학교의 자체조달을 강요하는 실정이다. 즉, 국어, 수학, 물리 등 주요 과목의 교과서는 일부 공급하고 있으나, 음악 등 기타 과목의 교과서는 거의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북한의 영재교육 제도

1. 영재교육의 등장 배경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체제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능력의 차등을 인정하는 영재교육은 이론상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론은 인간이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기보다는 후천적인 환경요건에 의하여 지능이나 성격이 결정된다는 환경결정론, 남녀간의 성별에 의한 능력 차이도 없다는 남녀평등관, 모든 사물은 정신 이전에 물질이 선행하며 따라서 물질이 정신을 규제한다는 유물론이라는 기본전제에 근거하여 성립·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김동규, 1990).

북한에서는 영재교육을 '수재교육'이라는 용어로 표현해 왔는데 '수재교육'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북한의 공식적인 교육사에 해당하는 '조선교육사 6'에서는 '속성교육'이라는 용어를 표현하고 있지만, 199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는 '수재교육'이라는 용어가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신문이나 정간물을 보면 '수재교육'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신효숙, 2001 : 65).

영재학교에 해당하는 수재학교는 1950년대만 해도 몇 곳만 운영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 급속히 확대되었다. 영재교육은 1970년대 말까지 사회주의 평등 원리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간주되어 최소한의 형태로만 운영되었다. 사회주의 교육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재능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차를 인정하고 특별교육을 실시

하는 영재교육은 '반동적 교육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김동규, 1990 : 455-458).

북한의 김일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다같이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천명하여 환경결정론을 뒷받침하는 교시를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교시하여 다른 견해를 나타내었다. 김정일의 이러한 관점은 개인이 유전적으로 타고 나는 소질과 재능을 바탕으로 하여 후천적인 환경 조건을 조작함으로써 특수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재능의 선천성과 후천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모순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보편적 원리인 인간의 평등관 때문에 개인의 선천적인 능력차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실제의 교육현장에서는 지능면에서나 성격면에서 개인차가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이론과 현실에서 한계점에 인식하게 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서구의 개인차 이론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북한에서도 영재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김현수, 1995, 2000).

실제로 1980년대에 들어 김정일이 영재의 조기 선발과 체계적인 교육을 지시함으로써 영재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김정일 정권 출범에 즈음해서는 수재학교가 학교교육체계와 나란히 '수재교육체계'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지난 1984년 첫 영재육성 학교인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하고 이듬해 청진, 함흥 등 각 도(직할시) 소재지에도 1개교씩 신설한 데 이어 1980년대 말 평양시 각 구역에, 1999년 3월부터 각 시(구역)·군까지 이를 확대된 것도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잘 키우라."는 김 총비서의 영재교육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김 총비서는 1999년부터 "우리에게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칠만한 수재들이 많아야 한다. 앞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천명하여 영재교육을 강조하였다(연합뉴스, 2001. 4. 18.).

김정일 체제의 공식화 이후 최근 북한의 교육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 교육의 변화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붕괴 후 극대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고 세계적 추세인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재교육, 컴퓨터교육, 선택과목교육, 종합대학내 단과대학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실용주의 교육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자본주의의 대표적 교육형태로 비난했던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은 최근 일부 대학에서도 수재반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영재교육의 발달과정

시기에 따라 변화해온 북한 교육의 발전과정을 다음의 3 단계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서의 영재교육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동규, 1988; 김현수, 1995, 2000; 신효숙, 2001).

가. 기술 인력 양성기(1945~1984)

1948년 공산정권의 발족 이후 김일성은 사상교육과 더불어 기술을 배우기 위한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초창기부터 기술 습득을 위한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은 김일성대학과 김책공대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946년에 개교한 김일성대학은 현재 역사, 법률, 경제, 조선어문학, 철학, 외국어문학, 수학, 역학, 물리, 화학, 생물학, 지리, 지질, 자동화원자력 등 14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야간 및 통신교육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데 반해 이 대학은 정규과정만 두고 있다.

북한 기술 인력의 산실인 김책공대는 1948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공학부에서 분리돼 평양공업대학으로 출발했으며, 한국전쟁 중인 1951년 김책공업종합대학으로 개칭되었다. 김책공대는 북한 최초의 기술대학이자 최대의 공업종합대학으로서 주요 학과로는 원자로 공학과, 지구물리탐사학과, 금속재료학과, 정밀기계학과, 핵전자공학과 등이 꼽히고 있다.

1958년에는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으며, 중등 및 고등기술전문학교의 수를 늘리고 그 질도 높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교육의 기회확대와 함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초에는 기술교육을 강조하고 의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체계의 개편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음악학교, 무용학교, 외국어학교, 조형예술학교, 체육학교 등이 새로운 학교교육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말기 이후 북한 교육정책의 뚜렷한 목표는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었다. 이 시기에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제와 취학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11년제 의무교육제를 시행하게 되어 북한 교육의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예능 교과목을 확대하였으며, 기술, 체육, 음악 등의 특기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고 대학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박사원, 연구원 등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었다.

나. 영재교육 형성기(1984-1997)

이 시기는 김일성 세습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이념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김일성의 후계자로 김정일이 부상하였던 시기이다. 북한은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영재교육을 '반동 교육'으로 비판해왔다. 그러나 김정일이 1984년 7월 영재의 조기 선발과 체계적인 교육을 지시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평양제1고등중학교(과학분야)가 설립되었고, 영재학교는 1985년 12개, 1995년 26개, 1999년 4월부터는 시·군·구마다 한 개씩 모두 2백여개로 늘어났다.

영재교육의 분야도 컴퓨터(금성제1, 2고등중학교), 예·체능(음악무용학교, 조형예술학교, 교예학교 등), 외국어(평양외국어고등중학교, 각 도의 외국어고등중학교), 군사(만경대혁명학원)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우열교육도 시작되었는데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일부 학과와 학부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만 수재반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는 각 고등중학교에서 수재반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야기된 이러한 변화는 사상위주의 교육만으로는 과학 기술 부문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북한 정권이 자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 시기에 이르러 그 동안 사회주의적 평등관에 의하여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던 북한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급 두뇌 인력을 양성하는 영재교육을 수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영재교육 발전기(1998-현재)

1998년 김정일 체제의 공식화와 함께 '강성대국'론이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강성대국'론은 정치적 과도기의 정국을 마감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신효숙, 2001 : 60). 강성대국 건설론의 주요 내용은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 수령중심의 정치·사상강국, 선군정치의 군사강국, 자력갱생의 경제강국 건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정우곤, 2001 : 16-19).

이러한 강성대국의 건설을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었으며,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 기술이 중시되었다. 과학기술 중시 노선에 따라 교육분야에서는 과학 기술 교육이 강조되었다. 북한은 최근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정보통신, 컴퓨터 교육을 강조하면서 영재교육을 통해 현대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과학기술 인력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최근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으로 인해 북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주체형 인간의 기본 품성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겨났다. 즉, 북한은 '주체형의 혁명인재'는 사상성이 투철한 수령의 혁명전사임과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걸 맞는 전문적 과학기술과

지식을 겸비한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다(신효숙, 2001 : 61-64).

특히 2001년에 들어와 북한의 영재교육체제는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월초 김정일 총비서의 영재교육 방침에 의해 북한에서도 컴퓨터 영재학교가 신설되었다. 컴퓨터교육을 영재교육과 결합시켜 본격적으로 컴퓨터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4월 1일 새 학년도부터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및 이들 시설의 부속학교인 금성 제1고등중학교와 금성 제2고등중학교에 '컴퓨터 수재 양성반'이 문을 열게 되어 전국의 인민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발된 영재들은 여기서 체계적으로 최신 컴퓨터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연합뉴스, 2001. 10. 24.).

이처럼 이 시기에는 컴퓨터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중시하여 컴퓨터 인재양성을 강조하였다. 컴퓨터 교육 열기가 고조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컴퓨터를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이, 평양과 함흥에 컴퓨터기술대학이, 각급 대학에 컴퓨터공학부와 정보공학강좌, 정보공학과가 각각 신설되었다. 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에 정보센터가 설치되는 등 컴퓨터 교육체계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연합뉴스, 2001. 11. 19.).

3. 영재교육 제도

가. 개관

북한은 취학전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여 무용, 음악, 조형예술, 공예, 체육 등의 예·체능과 과학, 외국어 등 특수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1960년부터 음악학교·외국어학교·조형예술학교·무용학교·체육학교 등을 설립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재교육을 추진하였으며 1984년부터는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예술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음악학교, 무용학교, 조형예술학교는 1960년부터 기본학제인 유치원의 '높은반' 과정부터 고등중학교까지 11년제로 운영되어오다가 1976년부터 10년으로 단축되었다. 유치원이나 인민학교 재학 중 선천적인 재능을 나타내는 아동을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예·체능 분야의 영재교육에서는 조기선발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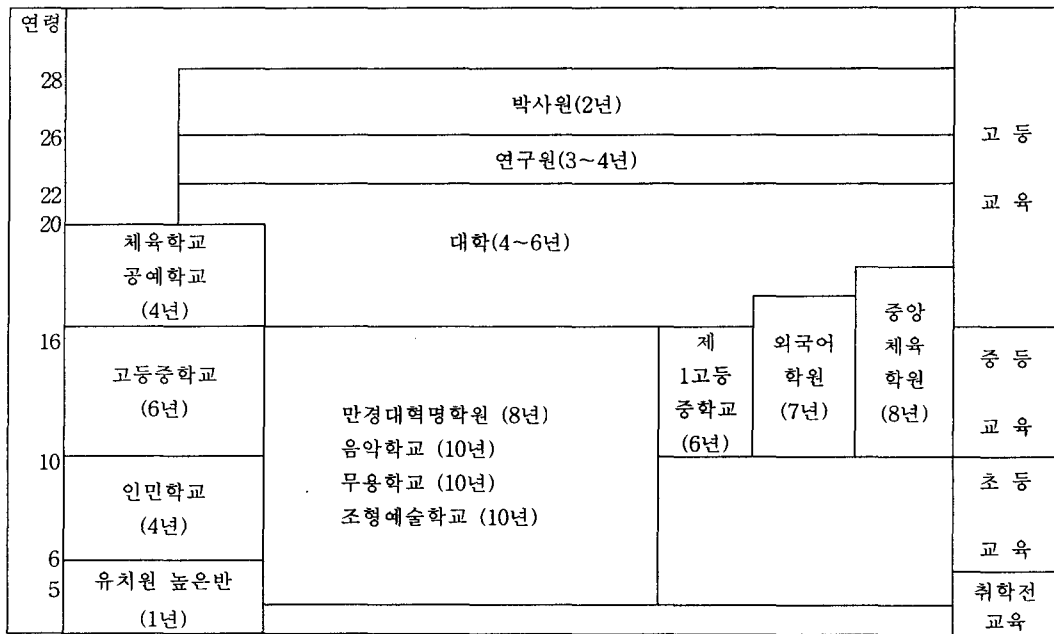
체육학교와 공예학교는 고등중학교 졸업자 중 체육과 공예부문의 특기자를 선발하여 4년제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 단계의 영재학교이다.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는 중앙체육학원은 8년제로 운영되는데, 인민학교 졸업생 중에서 체육특

기자를 선발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또한 북한은 교예학교를 설립하여 기예술(일종의 서커스)을 전문으로 연마하는 특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제1고등중학교는 전문적인 과학기술자들의 조기양성을 위한 6년제의 특수과학 영재 교육기관으로서 1984년 9월에 평양제1고등중학교의 개교와 함께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1999년 3월부터 각 시(구역)·군까지 이를 확대하였다. 제1고등중학교는 인민학교 졸업생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성적이 탁월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자연과학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컴퓨터 과목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 학교는 초현대적인 시청각 기자재와 실험실습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기숙사, 수영장, 체육관 등 완벽한 문화·후생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군사분야의 영재교육기관으로는 만경대혁명학원이 있는데, 혁명유가족의 자녀들과 당·정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에게만 입학이 허용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학교이다. 만경대혁명학원은 당·정 핵심 간부를 양성하는 직업혁명가 양성기관으로서 김일성종합대학과 함께 북한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불리고 있다.

다음의 [그림 2]는 북한의 영재교육 제도를 개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 : 공보처(1995), 북한교육제도, 서울 : 공보처 (일부 수정).

[그림 2] 북한의 영재교육 제도

나. 예·체능 영재교육

북한은 예·체능 영재교육을 위하여 1960년부터 기본학제에서 11년제의 음악학교와 무용·외국어·조형예술학교라는 일종의 영재교육 과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유치원이나 인민학교 생활 중 선천적으로 소질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해 영재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등중학교 졸업자 중 체육특기자를 위한 체육학교와 공예부분 특기자를 위한 공예학교를 4년제로 설치했고, 일종의 서커스인 기예술을 전문으로 연마하는 교예학교라는 명칭의 특수학교도 있다(송민영, 2000).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김정일의 지시로 각도에 1개의 예술·체육전문학교를 세우고 전국의 예·체능 영재교육에 힘쓰고 있다.

전문체육인 양성기관으로는 8년제의 중앙체육학원이 있는데, 인민학교 졸업생 중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 체육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양체육대학, 각 도의 체육전문학교, 그리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체육학부 등에서도 전문체육인을 양성하고 있다.

대학 수준의 대표적인 예능계 전문교육기관으로는 평양음악무용대학과 평양미술대학이 있다. 특히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는 학생 대 교수가 1 대 1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950년에 설립된 평양무용대학은 인민반(4년)·예과(3년, 중등과정)·전문부(3년, 고등과정)·대학(4년, 대학과정)으로 구분돼 있어 어릴 적부터 소질이 뛰어난 학생들이 입학해 대학까지 계속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과정이지만 무용전공의 경우 예과(3년)부터 시작해 전문부(3년), 대학(2년)의 8년간으로 단축된다. 한편, 평양미술대학은 조선화학부·회화학부·조각학부·공예학부·산업미술학부 등 5개 학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두 20여 개의 전공학과로 다시 세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예능계 전문교육기관으로는 2·16예술전문학교, 7·18고등예술전문학교, 강계고등예술전문학교 등이 있다. 특히 1973년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설립된 7·18고등예술전문학교는 유치원생부터 기악이나 성악·무용·미술 등에 천재적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예비반(유치원 수준), 인민반(초등학교 수준), 전문반(중·고교 수준)으로 구별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학교 교육방법의 특징은 반별로 기초이론 강의가 끝나면 학생 4명에 1명의 전문교사가 배당되어 집중적인 개인 지도를 한다는 점이다(송민영, 2000).

북한의 예·체능 영재교육은 철저한 조기교육과 월반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평양체육대학, 평양영화대학, 평양영화음악대학에는 인민반, 중등반, 전문반 등이 있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동들을 위탁받아 교육시키고 있는데 월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예·체능 영재교육기관은 대부분

조기 교육을 시키는 학교들로서 학생들은 엄격한 신원 조사 이후 선발되며, 일반 학교와는 횡적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편, 북한의 대표적인 학생예술단인 평양학생소년예술단 학생들도 대부분 평양에 위치한 금성 제1고등중학교와 금성 제2고등중학교 출신이다. 이들 학교는 주로 문화예술부문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 학생들은 오전 수업이 끝나면 '만경대학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분야별로 소조 활동을 통해 기량을 익히게 된다. 이 학교의 우수 학생들은 대학과정 교육을 받고 졸업한 후에는 각 예술단체에 배치된다. 이 학교가 선호되는 이유는 일반 학교와 달리 농촌 지원, 집단 체조 등 각종 동원에서 제외되어 공부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과 교사의 수준이 높은 데다가 현대적 시설을 갖춘 학교 건물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들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재능을 키울 수 있다는 유리함 때문에 경쟁도 매우 치열한 편이다.

다. 외국어 영재교육

북한의 외국어 영재교육은 대학단계에서는 평양외국어대학이, 고등중학교 단계에서는 1960~1961학년도에 설립된 외국어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외국어학원은 1976년까지는 11년제로 운영되다가 그 이후에는 7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평양외국어학원과 각 도의 외국어학원은 인민학교 졸업예정자 중 외국어에 발전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한다.

1958년 9월에 창설된 평양외국어혁명학원에서 개칭된 평양외국어학원은 로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는 6년제의 고등중학교 과정인데 7년 과정도 병설되어 있어서 이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평양외국어대학을 무시험으로 진학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분야의 영재교육기관은 학생들 사이에서 대단히 인기가 높고 입시경쟁도 치열하다.

라. 과학 영재교육

북한은 전문적인 과학기술자들의 조기양성을 위하여 6년제의 과학 영재교육기관으로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과학 영재교육기관으로는 1984년 9월 1일 평양에 설립된 평양제1고등중학교이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에 있는 이 학교는 김정일이 1957년부터 1960년까지 공부했다는 옛 남한중학교 교사를 신축해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이 학교는 김일성 혁명활동 연구실, 소조원 연구실, 종합강의실, 어학실습실, 강당 등의 주요 시설과 수영장, 의무실, 목욕탕, 이발소 등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다. 평양제1고등중학교는 차관급

이상의 자녀들과 일부 특수관리하는 학생들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장래가 확고히 보장되며 대학진학에 무조건적인 우선권이 주어진다.

북한은 이 학교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1985년에 남포·개성 등 2개 직할시와 청진·혜산 등 9개 도청 소재지에 동일 수준의 도단위 제1고등중학교를 1개교씩 신설하였으며, 1999년도부터는 평양의 각 행정구역마다에 제1고등중학교를 설치하였고(23교), 각 지방에서도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제1고등중학교를 세워 과학 영재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들 학교는 모두 현대적인 과학실험 기구실과 어학실습실 등과 함께 기숙사, 수영장, 체육관 등 문화 후생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등 북한 내 최상급 수준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이 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의 기초과학 전공 교사들을 배치한 북한 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영재교육기관이다.

각지의 제1고등중학교는 인민학교 졸업생들과 일반 고등중학교 재학생 가운데 재학기간에 특출한 성적을 올렸거나 수학·과학 등 자연과학계통에 뛰어난 소질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또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이들 학교 졸업생들은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곧바로 김일성대학, 김책공대, 평양이과대학 등 북한의 일류대학에 1년 과정의 예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과로 특례 입학할 수 있으며, 해외유학의 특전도 누릴 수 있다.

이 학교의 모집정원은 400명 정도이며, 학급당 인원은 25명 정도이다. 평양제1고등중학교에서 1천여명의 학생이, 나머지 제1고등중학교에서는 400~600명이 각각 수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정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운영되는데, 교육내용은 정치사상 교육 이외에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과 외국어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영재용의 별도의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최근 특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컴퓨터 과목이다. 컴퓨터 과목은 그 수업시간이 3학년까지는 연간 10시간, 4학년 이후로는 연간 36시간이다. 6년간의 교육기간 중 1~2학년 동안은 학생 개개인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고, 3~6학년 동안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개별 지도를 실시한다. 졸업 시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일어, 노어, 독어 등 3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게 된다(임정혁, 2000).

일반고등중학교에서는 성적이 낙제가 되어도 매학년 진급할 수 있으나, 특수영재학교인 제1고등중학교에서는 1학기와 2학기 2번 낙제를 맞으면 퇴학당하여 일반고등중학교로 오게 된다. 일반고등중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30%는 제1고등중학교에서 온 학생들이다.

한편, 북한은 대학뿐 아니라 영재육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각 지역의 제1고등중학교에도 수재반을 별도로 편성하였다. 즉, 김정일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2001

년 4월 1일부터 평양제1고등중학교와 각 도 제1고등중학교에서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로 수학 및 생물학 수재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들 수재반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위해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유명한 교수 및 연구사들을 겸직 교수로 채용하고 있다(연합뉴스, 2001. 6. 8.).

마. 군사 영재교육

북한의 군사 영재학교로는 1947년 10월 12일에 설립된 만경대혁명학원을 들 수 있다. 이 학교는 혁명유가족의 자녀들과 당·정고위간부들이 자녀들에게만 입학이 허용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학교다. 이 학교는 '항일투쟁' 참가자 유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이들 유자녀들은 특수계층으로 성장하여 '혁명 2세대'로서 북한의 지배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특수층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 정도로만 알려졌던 만경대혁명학원을 특성화하여 '군사분야의 수재양성기지'로 전환하였다. 즉, 김정일은 만경대혁명학원에서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무력의 핵심골간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서는 정치사상교양을 잘 하는 것과 함께 학원교육을 수재교육으로 전환시키고 기초과학교육과 군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군사분야의 수재들을 양성하는 기지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신효숙, 2001 : 67).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자리잡고 있는 만경대혁명학원의 학생수는 약 900명이고, 교육기간은 8년이다. 교육내용은 6학년까지는 기본적으로 6년 과정의 고등중학교와 같고, 7-8학년은 단과대학 수준의 군사·기술교육 위주로 교과가 편성돼 있다(조선일보, 2001. 8. 20).

이 학교는 당·정 간부양성이 주요 목적인 직업혁명가 양성기관으로 다른 학교와는 달리 인민무력부에 소속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고 군관과 같은 장교복 차림으로 군대식 생활과 규율 하에 집단 생활을 하면서 기초 군사교육과 혁명 역사를 집중적으로 교육받는다. 학생들에게는 인민군 중좌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며, 학교 및 일상생활에 있어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최우선적으로 김일성대학 진학이나 장교임용 및 당·정 초급간부로의 기용 등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만경대혁명학원은 당·정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직업혁명가 양성기관으로서 주민들 사이에서 '귀족학교'로 불리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김일성종합대학과 함께 북한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서 김정일을 비롯한 강성산, 연형묵 등 현재 북한 지도자 집단의 핵심인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바. 대학 영재교육

북한의 영재교육기관인 제1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에는 특별 과정을 개설하여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대학 영재교육을 강화해 가고 있다. 예·체능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소질 있는 영재아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꾸준한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김일성종합대학

1946년 개교한 이 대학은 현재 역사, 법률, 경제, 조선어문학, 철학, 외국어문학, 수학, 역학, 물리, 화학, 생물학, 지리, 지질, 자동화원자력 등 14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야간 및 통신교육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데 반해 이 대학은 정규과정만 두고 있다. 매년 9월 신학기가 시작되며 교육기간은 예비과정을 포함하여 사회과학 부문이 5년제, 자연과학 부문이 6년제이다. 현재 북한의 당·정 차관급 이상 고위간부의 70% 이상이 이 대학 출신이기도 하다. 재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선발기준은 출신 성분이다. 재학생 1만 2천명 가운데 중앙과 지방 당·정·군 중견 간부 이상 특권층 자제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 부문별 단과대학을 두고 있는 우리 나라와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의 모든 대학은 학부제로 운영되어 왔다. 사범대학을 제외하고 북한에서 유일하게 사회·인문·자연계통을 모두 가르치는 김일성종합대학 역시 종전까지 단과대학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에 점진적으로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있다. 지난 1999년 기존의 자동화학부 등을 개편해 컴퓨터과학대학을 처음 설치한데 이어 같은 해 법학부를 확대한 법률대학을 신설했으며, 2001년 초에는 세번째로 조선어문학부를 문학대학으로 개편했다.

한편, 최근에 김일성종합대학의 컴퓨터과학대학에 '수재반'이 설치되었다. 컴퓨터과학대학은 1999년 학부제로 돼있던 김일성종합대학에 처음 설립된 단과대학으로 정보과학과, 지능정보처리학과, 컴퓨터조종학과 등 3개 학과와 컴퓨터연구소, 박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1999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주요 대학의 자연학과들과 평양의학대학 등 의과대학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로 '수재반'을 편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연합뉴스, 2001. 6. 8.).

(2) 김책공업종합대학

이 대학은 평양 중구역 영광거리에 위치한 북한 최초의 기술대학이자 최대의 공업종합대학이다. 1948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공학부에서 분리되어 평양공업대학으로 출발했으며, 한국전쟁 중인 1951년 김책공업종합대학으로 개칭되었다. 현재의 학생수는 1만여 명, 교직원은 2천여 명이다. 이 대학에는 13개 학부 80여개 강

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전공학과로는 원자로공학과, 지구물리탐사학과, 금속재료학과, 정밀기계과, 핵전자공학과, 전자자동차학과, 물리학과, 기계학과, 지질학과, 선박학과, 광업학과, 금속기계학과, 체신학과, 전기학과, 건재학과, 공업경영학과, 컴퓨터프로그램학과 등이 있다. 그밖에 연구원·박사원·연구소 등이 설립되어 있다. 연구원은 1956년에 창설되었으며 주요 학과로는 원자로 공학과, 지구물리탐사학과, 금속재료학과, 정밀기계학과, 핵전자공학과 등이 있다(송민영, 2000).

(3) 리과대학

북한의 우수 과학자를 양성하는 대학으로는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단지에 위치한 리과(理科)대학을 들 수 있다. 이 대학은 1967년에 엘리트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단과대학으로 평남 평성시에 설립되었으나, 과학자들에 대한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평양시에 편입돼 평양 시민 대우를 받게 되었다.

북한에서 대학에 진학하려면 실력 못지 않게 출신성분과 집안 배경이 좋아야 하지만 리과대학만은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선발하는 과학원 직속대학이다. 과학원은 북한 최고의 과학연구단지로 리과대학과 한 몸이다. 이 대학의 입학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 예비시험에서 각 군에서 적어도 10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이들은 다시 최종 입학 시험을 거쳐 한해에 200명 정도가 리과대학에 들어간다. 북한 최고의 영재들이 선택하는 대학은 대개 김일성종합대학 아니면 리과대학이다. 간판을 중시하는 쪽은 김일성대학을, 실력을 기르겠다는 쪽은 리과대학을 선택하는 경향이다.

리과대학의 총학생수는 1500-1600명 정도이며, 총 200여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7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부는 수학부, 물리학부, 전자자동차학부, 생물학부, 컴퓨터학부 등 8개 학부가 있고 그 아래 자동화강좌, 이론과학강좌, 계산수학강좌 등 수십 개의 강좌가 있다. 또한 박사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학년별 학부 정원은 30명이며, 학과는 15명 정도이다. 여학생 비율은 15% 정도이다. 이 대학은 전액 국비로 과학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 학생에 비해 3배가 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학의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교재는 주로 이 교수들이 저술한 책들이며 원서는 참고서적으로 사용된다. 외국어는 독해 위주로 영어, 러시아어, 일어를 배우며, 대부분 학생들이 3개국 원서를 별 어려움 없이 읽어낸다. 시험은 8월과 1월 학기말에 치른다.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유급되고, 두 번 낙제하면 퇴학된다. 보통 한 학과 15명이 졸업하는 동안 2-3명이 유급 당하고, 1-2명 정도는 퇴학당한다(조선일보, 2000. 10. 22.).

(4) 평양컴퓨터기술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은 우수한 컴퓨터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하여 1985년 9월에 설립되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의 봉화산 기슭에 위치한 이 대학의 학생 수는 2500명이며, 교원 및 연구사는 200여명으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그렇지만 이 대학 졸업생들은 조선컴퓨터센터, 평양프로그램센터, 과학기술센터 등 북한의 주요 기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북한의 산업부문 전산화와 현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7년제로 운영되는 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우선 전원이 예비학부에서 3년간 컴퓨터 일반교육을 받으며 4년째부터는 컴퓨터공학부와 정보공학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컴퓨터공학부에서는 컴퓨터의 시스템 개발이나 각종 프로그램 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를, 정보공학부에서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엔지니어를 각각 양성한다. 세계 각국의 컴퓨터 관련 대학들과 과학기술 교류를 해온 덕분에 졸업생들은 물론 재학생들의 실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합뉴스, 2001. 4. 20.).

IV. 결 론

한때 영재교육을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교육형태로 비난했던 북한이 오히려 최근에는 '강성대국'론이라는 통치이념 아래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정보통신, 컴퓨터 교육을 강조하면서 영재교육을 통해 현대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영재교육은 최근에 시작된 것만은 아니다. 이미 1960년부터 음악학교·외국어학교·조형예술학교·무용학교·체육학교 등을 설립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재교육을 추진하였으며, 1984년부터는 제1고등중학교라는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군사분야의 영재학교로 만경대혁명학원을 설립하였다.

북한은 대학에서의 영재교육도 강화하고 있는데 제1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에는 특별 과정을 개설하여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등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

들로 '수재반'을 편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예·체능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소질 있는 영재아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꾸준한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선진 외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영재교육은 다른 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재교육은 순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체제 강화를 위한 교육목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전문적 과학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영재교육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영재도 사상성이 투철한 수령의 혁명 전사인 '주체형의 혁명인재'이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북한의 영재교육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영재교육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함께 북한은 각급 학교에 영재반 편성, 선택과목 교육 실시, 컴퓨터 교육 강화, 종합대학내 단과대학 설치와 함께 일반상식 교육을 크게 강화하는 등 실용주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1고등중학교와 대학에 컴퓨터 관련 영재반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은 과학기술 영재교육뿐만 아니라 예·체능, 외국어, 군사 분야로까지 특성화된 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예·체능과 외국어 분야의 영재학교는 이미 1960년대 초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특수층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 정도로만 알려졌던 만경대혁명학원을 특성화하여 '군사분야의 수재양성기지'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북한은 조기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2001. 4. 1.)은 "모든 교육자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소질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남다른 재능은 저절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와 교육자 모두가 어린이의 소질을 제때에 찾아내는데 힘써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이미 1960년대 초부터 취학전 교육 단계인 유치원 높은반에서부터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인민학교의 학습활동 중에서 선천적으로 소질을 보이는 아동을 선발해 영재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영재교육 제도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연계적으로 편성·운영되어 있다. 북한의 영재학교는 조기 선발의 원칙에 따라 인민학교(초등교육) 단계부터 예·체능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과학영재학교인 제1고등중학교 내에 6세에서 9세 과정의 '인민반'이 개설되어 있다. 평양무용대학은 인민반(4년)·예과(3년, 중등과정)·전문부(3년, 고등과정)·대학(4년, 대학과정)으로 구분돼 있어 어릴 적부터 소질이 뛰어난 학생들이 입학해 대학까지 계속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그리고 7·18고등예술전문학교는 유치원생부터 기악이나 성악·무용·미술 등에 천재적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예비반(유치원 수준), 인민반(초등학교 수준), 전문반(중·고교 수준)으로 구별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다. 영재교육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기관 전 과정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은 영재교육 기관 내에서 더욱 탁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영재학생을 상급의 영재교육 기관으로 진급시키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2001년 4월 1일부터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및 이들 시설의 부속학교인 금성제1고등중학교와 금성제2고등중학교에는 '컴퓨터 수재 양성반'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영재육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평양과 각 지방의 제1고등중학교에도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로 '수학 및 생물학 수재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등교육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대학교육단계에서의 영재교육에서도 영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은 1999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주요 대학의 자연학과들과 평양의학대학 등 의과대학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로 '수재반'을 운영하여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영재교육 기관 내의 영재반에 소속된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거쳐 상급의 영재교육 기관으로 진급시키고 있다. 영재학교인 제1고등중학교에도 수준별 등급이 있어 군·구역단위 제1고등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도·시단위 제1고등중학교로 진급시키고 있다. 평양의 경우 보통의 고등중학교 위에 각 구역마다의 제1고등중학교가 있고, 그 위에 만경대, 모란봉, 창덕의 각 제1고등중학교가 있으며, 제일 위에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있어 우수한 학생들은 이러한 수분별 등급에 따라 상급의 학교로 편입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북한의 영재교육 제도는 이제 시행 초기에 있는 우리 나라 영재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연계적으로 편성·운영되어 있는 북한의 영재교육 제도를 통하여 영재교육은 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조기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아영재교육을 영재교육 제도에서 제외한 우리 나라와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대평화연구소 편(1990).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서울 : 고대평화연구소.
- 공보처(1995). 북한교육제도. 서울 : 공보처.
- 국토통일원(1988). 북한의 교육실태와 특징. 서울 : 국토통일원.
-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서울 : 문맥사.
- 김동규(1999). 북한학총론. 서울 : 교육과학사.
- 김명호 외(1996).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 집문당.
- 김헌수(1995). "남북한의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천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헌수(2000). "남북한의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천의 비교연구." 통일교육연구. 창간호. 통일교육학회. pp. 147-169.
- 김형찬(1990). 북한의 주체사상교육. 서울 : 한백사.
- 김형찬(1998). 북한교육발달사. 서울 : 한백사.
- 송민영(2000). "북한의 영재교육 실태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2000년도 한국영재학회 추계 학술세미나. 한국영재학회.
- 신효숙(2001). "최근 북한 교육의 변화 동향." 북한 교육의 현실과 변화 전망. 2001년 북한 교육에 관한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통일교육학회, pp. 55-76.
- 이장희 편저(1999).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서울 : 도서출판 아사연.
- 이정규(2001). "북한의 교육 목표와 학생의 가치관." 북한 교육의 현실과 변화 전망. 2001년 북한 교육에 관한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통일교육학회, pp. 15-28.
- 이종석(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 임정혁(20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과학영재교육." 2000년도 한국영재학회 추계 학술세미나. 한국영재학회.
- 정우곤(2001). "주체사상의 변용담론과 그 원인-'우리식' 사회주의, '붉은 기 철학',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편(1994). 내가 받은 북한교육.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1998). 북한교육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0). 북한 교육 관계 법령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ABSTRACT

A Study on the Gifted Education System in North Korea

Kang, Kyung-Seok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ifted education system in North Korea. The study analysed various literature, articles, and internet resources concerning education in general and gifted education in North Korea.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emphasized gifted education to advance the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puter science.

Second, North Korea already introduced the gifted education system by establishing music schools, foreign language schools, art schools, dance schools, and athletics schools in 1960.

Third, North Korea has established special schools for the gifted in science since 1984. The schools play an important role in advancing the country's science and technology.

Fourth, in North Korea there are special course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for the gifted in various fields.

Fifth, North Korea has implemented the consistent and interrelated system of gifted education from kindergarten level to higher education level.